'랩' 선호 청소년 취향 신세대 찬불가 만든다

"빠른 '랩'을 좋아하고 컴퓨터 세대인 요즘 어린이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재미있는 찬불가를 만들겠다."

한국불교음악연구회(회장 정부기 중앙대교수)와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이 각각 어린 부처님들을 위한 새 찬불가집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음악연구회는 오는 가을 새 어린이찬불가를 내놓기 위해 현재 가사를 모집중이다. 내용이 좋은 불교적인 소재의 가사가 들어오는대로 정부기교수를 비롯 음악연구회 회원들인 이진구 현연주 박이제 김회경씨 등이 곡을 붙여 새 곡을 만들고 이를 시연하는 창작발표회도 갖는다는 계획.

정부기회장은 "요즘 아이들은 대여섯살부터 피아노·바이올린 등 악기를 배우기 때문에 음악에 있어 문외한이 드물므로 단조로운 음률의 곡은 도외시당한다"며 "요즘 어린이들을 위한 수준높은 새 찬불동요를 만들겠다"고 밝힌다.

연구회는 기존에 나와있는 곡중 널리 불리는 유명 찬불동요들도 편곡을 새로 해 반주곡을 붙여 새 동요집에 같이 묶을 예정이다.

황학현원장은 "어린이찬불가는 어린이 마음의 표현이기에 그들의 밝고 발랄한 마음처럼 가사와 곡이 조화를 이룬 발랄하고 경쾌한 어린이찬불가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한다.

연구원의 어린이찬불가 창작에는 황학현원장 외에 유익상 이종만 민선희 차은선씨 등이 참여한다.

현재 나와있는 어린이찬불가는 4백여곡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불려지고 있는 곡은 30곡이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다면 질 높은 찬불가의 창작뿐 아니라 이를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보급 방법 모색과 아울러 찬불가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올해 유난히 새 어린이찬불가가 풍성히 쏟아질 것을 기대할 때 법회등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가요보다 찬불동요를 선택할 날도 멀지 않은듯 싶다.

이경숙 기자

불교음악연구회 기존작품 편곡등 가을발표준비 한창

불교교육연구원 창작동요·어린이합창곡집 발간예정

지난 93년 율동 도해그림까지 삽입한 불교창작동요집 '연꽃들의 합창'을 낸 바 있는 불교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오는 5월 2백곡이 든 두번째 창작동요집과 어린이 합창곡집을 낸다. 이와함께 기존에 나와있는 곡중 어린이들에 맞고 널리 불리는 곡을 중심으로 새롭게 편곡한 종합 어린이찬불가집(3백곡 수록예정) 발간도 추진중에 있다. 현재 많이 불려지고 있는 〈즐거운 법문시간〉〈돼지임금〉 등 베스트 16곡을 카세트 테이프로 내기위한 녹음작업도 진행 중이다.

문인대표 1백명 독도 3·1절 세미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간에 첨예한 외교분쟁이 일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적 문인 1백명이 3·1절 기념행사를 독도에서 가질 예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체부와 '96 문학의 해 조직위는 '문학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3월1일 독도에서 '국가와 문학'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갖는다.

東大서 만해백일장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3월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문학의 해 기념 제17회 전국 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참가 접수마감 28일까지. (02)738-3386~7

불심시심 〈44〉

나눠가진 봄

洞裡花紅紅射日 (동리화홍홍사일)	동구안 꽃붉어 해로 쏘는 붉은 빛
嶺頭松碧碧凌空 (영두송벽벽릉공)	고개마루 푸른 솔 하늘 찌른 푸르름
一般春色分爲二 (일반춘색분위이)	똑같은 봄빛인데 둘로 갈라서
半入花林半入松 (반입화림반입송)	반은 꽃숲에 주고 반은 솔숲에 숨겼다

지리산금류동우음(智異山金流洞偶吟)이라 제한 침굉대사의 시이다. 지리산의 금류동을 지나다 우연히 읊는다는 것이다. 지난주의 시에서도 말했듯이 침굉대사의 시는 그저 이야기하듯이 흘러내려 꾸밈이 없다. 이 시도 봄의 한 순간을 이야기하듯 하였지만 봄의 특징을 이보다 더 간결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또한 일상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보는 선사의 자연일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선택할 때도 두루 고르기보다 책을 펼치자마자 그저 시선이 멎었고 그저 호감이 가기에 선택하였다. 대사의 작시 의도도 이렇듯 그저 이것이 봄이야 하는 담박한 시상이 아니었을까.

봄이 되어 꽃이 피었고 꽃이 있어 해는 더욱 밝다. 밝은 것이 아니라 꽃이 쏘아올리는 빛에 의해서 붉어졌다. 하늘이야 항시 푸른 것이기는 하지만 봄되어 더 푸르러진 저 숲 빛이 있기에 더더욱 푸른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대경의 모든 사물은 서로 맞서면서도 서로 맞물리는(相卽相入) 진리의 세계가 아닐까. 이 상즉상입한 자연의 실상에서 붉음 푸르름으로 대변될 수 있는 계절이 바로 봄이 아닌가.

이렇듯 봄이라는 한 상황으로 포용되면서 두 개의 한계적 빛으로 대별되어 하나는 꽃봉오리로 하나는 소나무가지로 나뉘어 갖게 된 것이다. 그 사실을 다음의 구로 이어 같은 봄 빛을 둘로 나누어 반은 꽃숲이 반은 소나무에 들었다 하였다. 이것을 진리의 현상으로 바꾸어 말할 때 진리는 하나이되 상황에 따라 길을 달리한다 할 수 있으리라. 당시의 사회상과 대사의 처지로 이해한다면 유석불이의 융화를 은연중에 강조하였다 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 시는 봄 경치를 한 말로 대변할 수 있는 시로서 그 탁월한 수사성에도 놀라움을 느끼게 한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조계종 '불교음악 발전방안' 간담회

모방여부·가사등 심의 절실

총무원 합동찬불가집 발간 늦어질듯

불교음악의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부장 시현)가 주관한 '불교음악발전 방안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총무원 청사 1층에서 개최됐다.

작곡가, 각 사찰 합창단 지휘자·단장 등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설적인 불교음악발전의 발판마련을 위해서는 작사 작곡 편곡 행사 등의 분야별 분과위를 만들어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또한 찬불가등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작품의 질, 찬송가 및 외국곡과의 모방여부, 가사의 적법성, 곡의 순수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 구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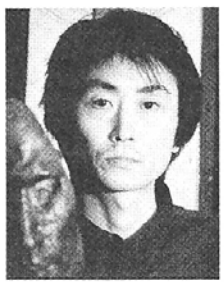
지도자·합창단 대표등과 종단 실무자가 참여하는 음악포럼의 정기화와 찬불가를 널리 보급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보급방법 모색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날 참가한 참석자 대부분은 총무원 주최로 오는 3월 17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합동찬불가집 발간기념음악회 행사일정이 너무 촉박해 자칫 졸속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또한 참석자 일부는 "총무원에서 만들려는 대중용 합동찬불가집이 교계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이미 완성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며 편파성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문사부는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찬불가집 간행위원회를 곧 구성해 선곡할 것"이라고 말해 합동찬불가집이 3월 17일까지 발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숙〉

◇모처럼 열린 '불교음악 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에는 작곡가·지휘자 등 음악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하는등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미술평론가협 미술상 받은 류인씨



"흙·나무등 자연소재로 인간본성 표현 노력"

"흙과 나무를 만지면서부터 인간의 본성을 생각했고 내가 살아가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미술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미술평론가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중견조각가 류인씨(41)가 이달말까지 아트 스페이스 서울갤러리에서 수상기념전을 갖고 있다.

작품의 일관된 주제 대상으로 인체를 택하고 있는 류씨는 청동으로 만든 팔이나 얼굴 등 몸의 한 부분과 자연상태 그대로의 나무와 흙으로 결합한 작품들을, 대담하게 생략되고 잘라낸 구성을 통해 정열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특성을 여실히 내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제1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 수상경력이 다채로운 그는 지난 87년 수행을 향한 인간의 외지와 비장함까지 표현한 연작 '입산(入山)' 시리즈를 발표하기도 했다.

"부조리와 인스턴트 문화를 거부하고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겠다"는 류인씨는 작고한 원로 서양화가 류경채씨의 아들이다. 〈숙〉

문화재소식

도난성보 대부분 탱화등 그림류

85건 1백88점 사찰문화재 유실

최근 6년 성보도난

불교문화재 도난이 가장 빈발한 곳은 경북이며 탱화등 그림류가 가장 많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과 문화재관리국이 지난 90년~95년 전국 사찰에서 발생한 성보도난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난당한 송광사 16고려국사영정을 비롯해 6년동안 모두 85건의 도난사건이 발생, 총 1백88점의 사찰문화재가 유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지난 94년 8월과 10월 잇따라 발생한 김용사와 고운사의 탱화도난 등 23건으로 가장 많아 이 지역 사찰문화재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남(18건) 부산·경남(16건) 전북(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난된 사찰문화재 종류별로는 탱화등 그림류가 1백42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상류 19점, 전적류 10점, 불구류 8점, 범종 4점, 석조 및 기타 5점 등으로 나타났다.

영국사 대웅전 보수

지방 유형문화재인 충북 영동 영국사(주지 성각)가 지난해 담장에 이어 올해 대웅전 보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영동군은 올해 문화재보수 예산안을 확정하고 영국사 대웅전과 난계사 담장 보수에 1억6천여만원을 투입, 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영국사 대웅전은 단청과 마루가 심하게 헐어 보수가 불가피한 상태다.

국보 반가사유상등 해외나들이

국립박물관 올 사업…9월 사찰종합조사

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을 비롯한 국립박물관 96년도 주요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국책사업 추진 △유물의 과학적 관리 및 발굴·학술조사 △세계화 정착을 위한 문화재 국내외 전시 △사회교육기능 강화 △지방박물간 건립 등 크게 다섯가지.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최대 국책사업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을 정하고 건립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조선왕궁역사박물관 건립 및 구 조선총독부건물을 철거키로 했다.

또 중앙박물관은 하반기에 고려·조선시대 향완 정병 등 불교공예품을 모은 '불교공예전' 등의 국내전시회 및 96년 애틀란타올림픽기념 미술전시회에서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전시와 9월경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등 13점의 샌프란시스코 동양미술박물관 전시등 해외전시 및 문화교류안도 마련했다.

유물 발굴 및 학술조사로는 중앙박물관의 사찰종합조사(9-10월)와 경주박물관의 불교유적조사(11월)등 모두 15건이 확정됐다.

인도등 7년 구도여행 소설화 향봉스님 '사람의 길' 펴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향봉스님이 7년동안의 인도와 네팔, 중국여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경험담을 소설화한 장편소설 〈사람의 길〉(밀알刊)을 펴냈다.

1인칭으로 전개되는 이 작품은 주인공의 입을 통해 작가의 종교관과 깨달음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작품속에 녹아들게 했다. 소설은 부처님의 나라 인도·네팔 등으로의 구도여행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얻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사는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명쾌한 답을 내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대답이다. 그러나 이 행복은 방종적인 것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다독이며 사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다.

소설은 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작가의 경험과 애정어린 눈으로 그려진, 제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게 하고 진솔한 삶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향봉스님은 시집 〈사랑하며 용서하며〉와 장편소설 〈겨울장마〉 등 12권의 시와 소설을 발표해 왔다.

禪茶一如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 다원 녹수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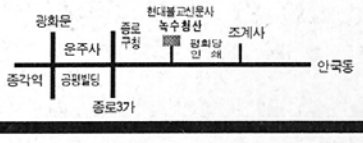
따스한 차 한 잔이 더욱 그리워지는 때

발걸음은 어느새 녹수청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차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따스함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집을 찾은 손님을 맞이하듯
먼길 다녀온 자식을 대하듯
바로 그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오직 녹수청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따스함.
유달리 매운 바람에 옷깃을 여민 어느 날,
어느 새 발걸음은 녹수청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 736-3782)

오시는 곳



大韓國人
安重根(義士)

옥중 安의사의 간수였던 일본 헌병이
존경과 참회로 바라본
인간 안중근.
약사암의 一如스님이 번역하여 국내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장면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네가 공소를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네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은 즉 죽는 것이 영광이나 모자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상봉치 못하겠으니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리……." (安義士 어머니가 상고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라는 충고)
-본문 중에서-

연락처 : (053) 852-0803, 藥師庵 一如
총판 : 책방 여시아문 (02) 737-069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역작!

출가자에게는 수행의 지침!
재가자에게는 삶의 지표!

보살사상
경구선집

보살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가 그 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사상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것은
한국불교의 열악한 현실의 반영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살의 진정한
모습과 그 정신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속의 모든 불자들이 견지하고
지향해야 할 점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太空月珠 編譯/크라운판 양장/
38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